

# 국제결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결혼」이런 기분 좋은 말에 취해버리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국제 결혼이 되면 일반 결혼보다 장애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센터의 상담 중에서 공통되는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소개해 봅니다.

## 법률의 벽, 생활의 벽, 폭력, 국적 등 장애가 잔뜩

요즘, 일본 전국의 매년 혼인수의 약 5~6%가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입니다. 동경 등의 도시에서는 10 쌍 중에 1 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것 보다는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4 배 많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멋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의 남녀라도 정작 결혼한다고 하면 넘지 않으면 안될 장애가 있습니다만 국제결혼의 경우는 이 장애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선 언어의 문제는 꽤 큼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만 일본어를 못한다고 결혼상대를 깔보는 태도를 취하는 일본인 배우자가 적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천천히라도 상대방과 자주 대화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은 했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 측이 불리합니다. 일본의 법률 등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재류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써는 이혼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생활비 · 육아비용 마련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심각합니다. 부부간의 폭력은 밀실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바깥에 알려지기 어렵고 상승 작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디다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적 여성인 경우 그분들은 이중삼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다른 곳에 호소할 수도 없고 (DV 피해여성의 구급시스템에 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 재류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쳐 나오는 것이 재류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심한 경우는 남편이 부인을 입국관리국에 통보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도망쳐도 그 후의 생활수단이 없는 것 등 입니다.

외국적 여성 측에서도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일본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www.ficec.jp/foreign/](http://www.ficec.jp/foreign/)

● 「인포메이션후지미노」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